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2026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 2(1) 단어의 짜임과 새말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주어진 문장을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분석하고, 각 형태소를 자립성과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출제됩니다. 또한 단어를 어근과 접사로 나누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구분하는 유형과 특정 접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도 빈번하게 출제되므로 꼼꼼히 학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새말이 합성, 파생, 축약 등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말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이해하고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의 가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를 의미한다.
- ②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 ③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므로, 이를 더 쪼갤 경우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 ④ 홀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다.
- ⑤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 등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혹은 문법적인 의미만 더하는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한다.

2.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직접 싼 김밥을 들고 소풍을 떠났다.

- ① 9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② ‘싼’은 어간 ‘싸-’와 어미 ‘-ㄴ’으로 이루어진 활용형이다.
- ③ ‘김밥’은 ‘김’과 ‘밥’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 ④ 문장에 쓰인 조사 ‘을’은 자립성은 없으나 단어로 취급한다.
- ⑤ ‘들고’는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가 결합한 말이다.

3.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제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 ② 홀로 쓰일 수 없으며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 ③ 홀로 쓰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 ④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⑤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된다.

4.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손바닥
- ② 지우개
- ③ 어른스럽다
- ④ 떠들다
- ⑤ 봄눈

5. 다음 중 단어의 형태소 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덮개 → 덮- + -개
- ② 맨손 → 맨- + 손
- ③ 잠꾸러기 → 잠 + -꾸러기
- ④ 어른스럽다 → 어른 + 슨다
- ⑤ 빨강다 → 빨강- + -다

6. 다음 중 문장을 형태소로 바르게 나눈 것은?

- ① 헛걸음 / 을 / 하- / -았 / -다
- ② 동생 / 이 / 엄마 / 몰래 / 놀- / -러 / 갔- / -다
- ③ 나는 / 친구와 / 이야기를 / 하며 / 자리에 / 앉았다
- ④ 내 / 가 / 그린 / 기린 / 그림 / 은 / 참 / 잘 / 그렸- / -다
- ⑤ 우리 / 는 / 맨- / 손 / 으로 / 고기 / 를 / 잡- / -았- / -다

7. <보기>의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강에 물안개가 끼었다.

- ① ‘강’, ‘물’, ‘안개’는 모두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 ② 이 문장에 쓰인 실질 형태소는 모두 3개이다.
- ③ ‘물안개’는 실질 형태소만으로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④ ‘끼었다’의 어간 ‘끼-’는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 ⑤ ‘에’, ‘가’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다.

8. 다음 중 어근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맡아들
- ② 치솟다
- ③ 돌다리
- ④ 덧신
- ⑤ 신기록

9. 단어의 짜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보기>
밤낮: 밤+낮

- ① 노을
- ② 멧쟁이
- ③ 책가방
- ④ 헛디디다
- ⑤ 군소리

10.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높푸르다’는 어근 ‘높-’과 어근 ‘푸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이처럼 둘 이상의 어근을 합하여 동작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합성어를 만들 수 있다.

- ① 뛰놀다
- ② 검푸르다
- ③ 날뛰다
- ④ 늦더위
- ⑤ 오가다

11. <보기>의 뜻을 가진 접사가 결합한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버릇이 많거나 어떤 일을 잘 일으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① 멧쟁이
- ② 잠꾸러기
- ③ 낚시꾼
- ④ 놀이터
- ⑤ 덮개

12. <보기>의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밤새 ㉠황소바람이 불던데 춥지는 않았어?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한 걸 보니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어.

- ① ㉠과 ㉡은 모두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 ② ㉠은 ㉡과 달리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③ ㉡은 ㉠과 달리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은 어근 '황소'와 어근 '바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⑤ ㉡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먹'과 '구름'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새말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려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다.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외래어나, 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도 새말에 포함되지.

(나) 새말은 ㉠합성이나 파생처럼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에 따라 만들어져. 이 중에는 '채팅방(채팅+방)'처럼 우리말과 외래어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도 있어. 최근에는 기존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말이 만들어지기도 해.

(다)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된 새말은 널리 쓰이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리기도 하고,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지기도 해. 새말은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어. 하지만 재미 위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새말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

13. 윗글을 바탕으로 '새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의 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 쓰는 말이다.
- ②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은 순화어도 새말에 포함된다.
- ③ 합성이나 파생과 같이 기존의 단어 형성 방식을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 ④ 널리 쓰여 표준어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사라지기도 한다.
- ⑤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가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 ① ‘하늘’, ‘구름’과 같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더 나누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 ④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 즉 홀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 ⑤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2. [정답] ①

제시된 문장은 ‘직접 / 쓴 / 김밥 / 을 / 들고 / 소풍 / 을 / 떠났다’로 총 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싸다’의 어간 ‘싸-’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 ‘김밥’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김밥’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김’과 ‘밥’이라는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 ④ 조사 ‘을’은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어 단어로 인정된다.
- ⑤ ‘들고’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간 ‘들-’과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는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한 말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3. [정답] ②

조사 ‘와’, ‘에’와 어미 ‘-다’는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며,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형식 형태소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 ①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형태소이다.
- ③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단어(‘어제’, ‘친구’ 등)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조사(‘와’, ‘에’)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4. [정답] ③

‘어른스럽다’는 ‘어른-/스럽-/다’와 같이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 ① ‘손바닥’은 ‘손/바닥’의 2개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지우개’는 ‘지우-/개’의 2개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 ④ ‘떠들다’는 ‘떠들-/다’의 2개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 ⑤ ‘봄눈’은 ‘봄/눈’의 2개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5. [정답] ④

‘어른스럽다’는 어근 ‘어른’에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스럽-’과 어미 ‘-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어른 + -스럽- + -다’로 분석해야 한다.

- ① ‘덮개’는 어근 ‘덮-’에 접미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② ‘맨손’은 접두사 ‘맨-’에 어근 ‘손’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③ ‘잠꾸러기’는 어근 ‘잠’에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⑤ ‘빨강다’는 어근 ‘빨강-’에 어미 ‘-다’가 결합한 단어이다.

6. [정답] ⑤

‘우리 / 는 / 맨- / 손 / 으로 / 고기 / 를 / 잡- / -았- / -다’는 각 형태소의 구분이 바르게 이루어졌다.

- ① ‘헛걸음’은 접두사 ‘헛-’과 ‘걸- / -음’으로, ‘-았’은 선어말 어미 ‘-았-’으로 분석해야 한다.
- ② ‘갸다’의 어간은 ‘갸-’이 아닌 ‘가-’이므로 ‘가- / -았- / -다’로 분석해야 한다.
- ③ 단어 단위로 나눈 것으로, 형태소로 바르게 분석하면 ‘나 / 는 / 친구 / 와 / 이야기 / 를 / 하- / -며 / 자리 / 에 / 앉- / -았- / -다’가 된다.
- ④ ‘그린’은 ‘그리- / -ㄴ’으로, ‘그림’은 ‘그리- / -ㅁ’으로, ‘그렸다’는 ‘그리- / -었- / -다’로 분석해야 한다.

7. [정답] ②

<보기> 문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는 ‘강’, ‘물’, ‘안개’, ‘끼-’로 모두 4개이다.

- ① ‘강’, ‘물’, ‘안개’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이다.
- ③ ‘물안개’는 실질 형태소인 어근 ‘물’과 ‘안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④ 어간 ‘끼-’는 반드시 어미와 결합해야 하므로 의존 형태소이며,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 ⑤ 문법적 기능을 하는 조사 ‘에’, ‘가’는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다.

8. 정답 ③

‘돌다리’는 어근 ‘돌’과 어근 ‘다리’가 결합한 합성어로, 어근이 2개이다.

- ① ‘만아들’은 접두사 ‘만-’과 어근 ‘아들’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어근은 1개이다.
- ② ‘치숫다’는 접두사 ‘치-’와 어근 ‘숫-’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어근은 1개이다.
- ④ ‘덧신’은 접두사 ‘덧-’과 어근 ‘신’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어근은 1개이다.
- ⑤ ‘신기록’은 접두사 ‘신-’과 어근 ‘기록’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어근은 1개이다.

9. 정답 ③

<보기>의 ‘밤낮’은 어근 ‘밤’과 어근 ‘낮’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책가방’ 역시 어근 ‘책’과 어근 ‘가방’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단어의 짜임이 같다.

- ① ‘노을’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② ‘멋쟁이’는 어근 ‘멋’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④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에 어근 ‘디디-’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⑤ ‘군소리’는 접두사 ‘군-’에 어근 ‘소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0. 정답 ④

‘눗더위’는 어근 ‘눗-’과 어근 ‘더위’가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명사이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합성어(용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뛰놀다’는 어근 ‘뛰-’와 어근 ‘놀-’이 결합한 합

성 동사이다.

- ② ‘검푸르다’는 어근 ‘검-’과 어근 ‘푸르-’가 결합한 합성 형용사이다.
- ③ ‘날뛰다’는 어근 ‘날-’과 어근 ‘뛰-’가 결합한 합성 동사이다.
- ⑤ ‘오가다’는 어근 ‘오-’와 어근 ‘가-’가 결합한 합성 동사이다.

11. 정답 ②

<보기>는 접미사 ‘-꾸러기’에 대한 설명이다. ‘잠꾸러기’는 어근 ‘잠’에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① ‘멋쟁이’는 ‘그러한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③ ‘뉘시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꾼’이 결합한 단어이다.
- ④ ‘놀이터’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터’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⑤ ‘뉘개’는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개’가 결합한 단어이다.

12. 정답 ④

‘황소바람’은 어근 ‘황소’와 어근 ‘바람’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① ㉠과 ㉡은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 ② ㉠은 합성어, ㉡이 파생어이므로 설명이 바뀌었다.
- ③ ㉠이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므로 설명이 바뀌었다.
- ⑤ ㉡ ‘먹구름’의 ‘먹-’은 ‘검은 빛깔의’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먹구름’은 파생어이다.

13. 정답 ⑤

본문 (다)에서 새말은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가치는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본문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새말의 개념이다.
- ② 본문 (가)에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도 새말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 ③ 본문 (나)에서 합성이나 파생과 같은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으로도 새말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 ④ 본문 (다)에서 새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리기도 하고 잠깐 유행하다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목차
내신 기출문제
모의고사 분석변형
수특수완 분석변형
국어전문 학습자료